

WEBVTT

00:00:08.195 --> 00:00:11.063  
블로그 브랜딩 강사 성장열입니다.

00:00:14.258 --> 00:00:17.584  
이번 시간에는 블로그를  
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

00:00:17.684 --> 00:00:21.619  
나만의 블로그 꾸미기를  
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22.048 --> 00:00:26.049  
자신만의 블로그를 만들고  
거기에 해당하는 로고

00:00:26.149 --> 00:00:29.302  
그리고 썸네일,  
즉 대표 사진이라고 하죠.

00:00:29.402 --> 00:00:34.109  
각 콘텐츠에 들어갈 대표 사진과  
블로그의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

00:00:34.260 --> 00:00:39.763  
타이틀 만들기도 함께 이론과 실습을  
병행하며 진행해 볼까 합니다.

00:00:39.863 --> 00:00:44.269  
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 
이론 파트가 되겠습니다.

00:00:44.369 --> 00:00:47.206  
블로그 디자인에 대해서  
한 번쯤 생각해 봤나요?

00:00:47.306 --> 00:00:50.712  
이것 역시 주제  
선정하는 것과 다름없는

00:00:50.812 --> 00:00:54.178  
답답한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요.

00:00:54.920 --> 00:00:58.751  
이런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 
BMW 차트에 이은

00:00:58.851 --> 00:01:04.684  
나만의 블로그 차트  
AF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.

00:01:04.784 --> 00:01:08.329  
앞선 주제 선정과 유사한  
보기 쉬운 차트를 이용해서

00:01:08.429 --> 00:01:12.581  
나만의 블로그 꾸미기에 조금이나마  
도움이 되고자 합니다.

00:01:12.681 --> 00:01:15.758

보이는 차트처럼 나만의  
블로그를 꾸미기 위해서

00:01:15.858 --> 00:01:19.324

어떤 것들이 쓰이게 되는지  
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?

00:01:19.424 --> 00:01:24.455

우선 블로그 디자인에 앞서  
자신의 블로그를 보다 명확하게

00:01:24.555 --> 00:01:29.033

정의할 수 있는 블로그 이름  
선정이 우선 되어야 할 텐데요.

00:01:29.133 --> 00:01:32.521

그러기 위해서는 블로그  
주제 선정과 마찬가지로

00:01:32.621 --> 00:01:35.260

보다 쉬운 차트를 이용해서  
이름 짓기를 하면

00:01:35.360 --> 00:01:39.514

더욱 빠르고 이해하기 쉬운  
이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

00:01:39.614 --> 00:01:42.909

먼저 제가 선정한 요소들을  
함께 살펴보을까요?

00:01:43.756 --> 00:01:49.292

흔히 사람들은 좋아하는 요소들이  
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
00:01:49.392 --> 00:01:53.817

우선 동물, 컬러, 호칭,  
직업 혹은 수식어,

00:01:53.917 --> 00:01:56.231

음식 같은 것들이 예가 될 텐데요.

00:01:58.811 --> 00:02:02.853

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번  
차트를 채워봤습니다.

00:02:05.998 --> 00:02:10.999

보이는 것처럼 저는 동물 쪽에는  
고양이, 곰, 호랑이 같은

00:02:11.099 --> 00:02:12.704

단어들을 넣었고요.

00:02:12.804 --> 00:02:15.300

컬러는 브라운, 옐로우, 블루.

00:02:15.400 --> 00:02:21.906

호칭은 열쓰, 헤강, 똥글이와  
같이 나 혹은 다른 이들이

00:02:22.085 --> 00:02:26.126  
불러 주는 별명 같은 것들을  
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.

00:02:27.080 --> 00:02:30.503  
또한 지금 자신이  
갖고 있는 직업 내지

00:02:30.603 --> 00:02:33.928  
내가 되고 싶은 직업을  
넣어도 좋겠고요.

00:02:34.028 --> 00:02:37.786  
그리고 단순한 이름을  
짓기보다 그 앞에

00:02:37.886 --> 00:02:41.919  
친절한, 슬기로운과  
같은 수식어를 넣는다면

00:02:42.019 --> 00:02:45.516  
보는 이로 하여금 보다 더  
이해하기 쉬운 이름을

00:02:45.616 --> 00:02:46.893  
만들 수 있을 겁니다.

00:02:46.993 --> 00:02:51.565  
이렇게 차트에 만들어진  
단어들을 조합한다면

00:02:51.665 --> 00:02:55.618  
보다 재미있는 타이틀  
만들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.

00:02:55.718 --> 00:03:00.396  
예를 들어서 앞선 직업과  
이름을 연결하면

00:03:00.496 --> 00:03:05.742  
포토그래퍼 성장열 혹은 개발자  
열쓰의 개발 같은 코딩일기 같은

00:03:05.867 --> 00:03:07.919  
블로그 이름도 만들 수 있겠죠.

00:03:08.791 --> 00:03:11.127  
또한 수식어를 활용한 예입니다.

00:03:11.227 --> 00:03:15.442  
유명한 친절한 혜강씨 역시  
단순한 혜강씨라는 이름만

00:03:15.559 --> 00:03:19.295  
사용하기보다 친절한이라는  
수식어를 사용함과 동시에

00:03:19.395 --> 00:03:23.020  
많은 이들이 기억하기 쉬운  
타이틀이 완성됐습니다.

00:03:24.004 --> 00:03:27.279

슬기로운 슬기씨 같은  
이런 라임이 들어간

00:03:27.379 --> 00:03:29.616

타이틀도 재미있는  
요소 중 하나겠죠.

00:03:30.808 --> 00:03:34.394

또한 앞서 저희가  
작성했던 동물과 같은

00:03:34.494 --> 00:03:39.215

친숙한 소재를 조합하는 것도  
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.

00:03:39.315 --> 00:03:45.476

보이는 것처럼 글 쓰는 고양이,  
달리는 거북이, 딸기 소보루와 같은

00:03:45.576 --> 00:03:47.979

예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.

00:03:48.079 --> 00:03:51.682

하지만 타이틀 작성 시  
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.

00:03:53.318 --> 00:03:59.486

ㅋㅋㅋ 아니면 ㅎㅎㅎ 같은  
정말 의미 없는 단어들이나

00:04:00.909 --> 00:04:05.857

삼성, 아리따움, 총각네 야채가게  
같은 이미 브랜딩이 된

00:04:06.021 --> 00:04:08.904

이름을 따라가는 건  
개인 브랜딩에 있어서도

00:04:09.004 --> 00:04:11.638

그리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 
할 수 있겠습니다.

00:04:12.820 --> 00:04:17.732

또한 19금 음란물에 관한  
이름이나 저작권에 관련된

00:04:17.832 --> 00:04:19.588

타이틀 역시 마찬가지겠죠.

00:04:22.532 --> 00:04:26.330

끝으로 IT 에스프레소,  
야매요리, 커피소년

00:04:26.430 --> 00:04:30.388

혹은 친절한 혜강씨와  
같이 이미 그 분야에서

00:04:30.488 --> 00:04:33.097

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 
블로그 이름을 따라가는 것

00:04:33.225 --> 00:04:37.987  
역시 자신만의 블로그 만들기에  
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

00:04:38.585 --> 00:04:40.305  
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.

00:04:41.260 --> 00:04:45.367  
이렇게 이름이 탄생하게 되면  
자신만의 로고 만들기도

00:04:45.502 --> 00:04:47.215  
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.

00:04:48.279 --> 00:04:53.211  
브랜딩에 있어서 이름보다 이런  
이미지 로고가 보는 사람들의

00:04:53.311 --> 00:04:57.271  
기억에 더 오래 남는 것처럼  
블로그 운영을 하면서도

00:04:57.371 --> 00:05:00.321  
자신만의 로고를 갖는 것  
역시 브랜딩에

00:05:00.421 --> 00:05:02.939  
상당히 유리하다고  
할 수 있겠습니다.

00:05:03.603 --> 00:05:06.101  
제 블로그 이름은  
IT 에스프레소입니다.

00:05:06.201 --> 00:05:11.427  
제가 좋아하는 IT 그리고  
커피라는 요소를 합친 이름인데요.

00:05:11.527 --> 00:05:17.253  
로고를 보면 커피잔에 스마트폰을  
빠뜨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

00:05:17.353 --> 00:05:22.120  
이름을 만든 다음에 로고 구상까지는  
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

00:05:22.220 --> 00:05:25.357  
보이는 것처럼 IT를  
의미하는 스마트폰과

00:05:25.457 --> 00:05:28.740  
커피를 의미하는 커피잔을  
결합한 것뿐이거든요.

00:05:28.840 --> 00:05:32.018  
이렇게 제작된 로고는  
자신이 촬영한 이미지

00:05:32.118 --> 00:05:36.789  
혹은 글에 포함이 되면서

암묵적으로 내 콘텐츠라는 걸

00:05:36.889 --> 00:05:40.483  
많은 이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의  
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00:05:41.855 --> 00:05:44.193  
친절한 혜강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.

00:05:44.293 --> 00:05:48.274  
저 같은 로고가 아닌 하나의  
캐릭터를 로고화하면서

00:05:48.374 --> 00:05:51.811  
블로그 브랜딩에 도움이  
될 수도 있습니다.

00:05:52.691 --> 00:05:56.575  
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 
로고 만들기가 캐릭터나

00:05:56.675 --> 00:06:00.979  
혹은 직접 디자인한 그림이  
아니어도 무방하겠습니다.

00:06:01.079 --> 00:06:04.133  
보는 것처럼 직접 그리고 쓰는 방법

00:06:04.233 --> 00:06:07.800  
혹은 아이콘을 이용하는  
방법이나 그 아이콘 두 개를

00:06:07.973 --> 00:06:10.683  
조합하는 방법,  
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처럼

00:06:10.822 --> 00:06:15.467  
글 쓰는 고양이라고 했다면  
고양이와 펜촉 아이콘 두 가지를

00:06:15.568 --> 00:06:19.000  
결합함으로써 글 쓰는  
고양이라는 아이콘

00:06:19.100 --> 00:06:22.874  
혹은 로고를 만들 수 있는  
방법과 마찬가지겠죠.

00:06:22.974 --> 00:06:26.577  
하지만 로고 만들기에 경험이  
없고 처음 블로그를

00:06:26.677 --> 00:06:30.486  
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저작권에  
저촉되지 않는 아이콘

00:06:30.586 --> 00:06:34.187  
혹은 디자인을 찾는 게 그리  
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

00:06:34.861 --> 00:06:38.626

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 
사이트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.

00:06:38.726 --> 00:06:42.125  
Flaticon.com이라는  
사이트에 접속을 해 보면

00:06:42.225 --> 00:06:45.770  
방대한 분야에 저마다  
필요한 아이콘을

00:06:45.870 --> 00:06:48.755  
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

00:06:49.536 --> 00:06:53.582  
이렇게 블로그 이름과  
로고 만들기가 완성됐다면

00:06:55.117 --> 00:06:59.025  
자신만의 콘텐츠를  
굳이 선택하지 않아도

00:06:59.125 --> 00:07:01.115  
이건 친절한 혜강씨의 글이구나

00:07:01.215 --> 00:07:05.632  
혹은 이견 열쓰님의  
콘텐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

00:07:05.732 --> 00:07:08.039  
자신의 콘텐츠를  
대변할 수 있는 썸네일

00:07:08.170 --> 00:07:10.858  
그러니까 대표 사진을  
만들어주는 것도

00:07:10.958 --> 00:07:13.526  
콘텐츠를 알리는 방법  
중의 하나입니다.

00:07:13.626 --> 00:07:16.516  
지금 보는 것처럼  
글을 클릭하지 않아도

00:07:16.616 --> 00:07:20.257  
어떤 글인지 대략적인 내용을  
파악할 수 있겠죠.

00:07:20.357 --> 00:07:23.524  
더군다나 친절한 혜강씨는 같은  
경우에는 자신의 캐릭터를

00:07:23.635 --> 00:07:27.462  
로고화해서 썸네일에 조합하는  
방법을 이용했습니다.

00:07:28.267 --> 00:07:31.458  
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다른 사이트

00:07:31.558 --> 00:07:34.103

그러니까 친절한  
혜강씨의 사이트가 아닌

00:07:34.203 --> 00:07:38.767

페이스북, 카카오토리와  
같은 여타 SNS에 접속해서

00:07:38.867 --> 00:07:41.038

친절한 혜강씨의 콘텐츠를 접하더라도

00:07:41.138 --> 00:07:44.356

이건 친절한 혜강씨의  
콘텐츠구나라는 걸

00:07:44.456 --> 00:07:47.938

금방 알 수 있는 하나의  
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.

00:07:50.238 --> 00:07:53.640

하나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 
되면 이렇게 검색 결과에

00:07:53.799 --> 00:07:56.183

반영되는 대표 사진을  
볼 수 있는데요.

00:07:56.283 --> 00:08:00.480

이렇게 대표 사진만으로도  
이건 누구의 콘텐츠고

00:08:00.580 --> 00:08:06.268

또 매력적인 콘텐츠겠구나라는 걸  
파악할 수 있겠습니다.

00:08:06.821 --> 00:08:11.049

또한 블로그 브랜딩에 있어  
로고, 블로그 이름,

00:08:11.149 --> 00:08:15.352

대표 사진에 못지않은 중요한  
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.

00:08:15.452 --> 00:08:17.614

바로 블로그 타이틀입니다.

00:08:18.121 --> 00:08:21.377

지금 보이는 것처럼  
블로그에 접속했을 때

00:08:21.530 --> 00:08:25.349

그 사람의 블로그 타이틀  
그러니까 한눈에 보이는

00:08:25.449 --> 00:08:29.359

이미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 
그 블로그의 주제 내지

00:08:29.459 --> 00:08:31.746

블로그 이름을  
가늠할 수 있겠는데요.

00:08:32.893 --> 00:08:37.679

보이는 보니의 참 쉬운 레시피  
역시 깔끔한 햄버거 사진

00:08:37.824 --> 00:08:42.447

그리고 보니님의 블로그  
이름을 함께 조합함으로써

00:08:42.547 --> 00:08:47.032

굳이 블로그 콘텐츠를 보지 않아도  
블로그를 접속하는 것만으로도

00:08:47.132 --> 00:08:50.210

해당 블로그의 주제와  
그리고 어떤 콘텐츠로

00:08:50.310 --> 00:08:52.539

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

00:08:52.639 --> 00:08:56.411

보이는 감성드라마  
팩토리도 마찬가지로인데요.

00:08:57.339 --> 00:09:02.265

인기 있는 해외 혹은 국내  
드라마들을 그 시즌에 맞게끔

00:09:02.365 --> 00:09:06.463

타이틀로 제작해  
블로그에 기재함으로써

00:09:06.563 --> 00:09:11.475

나는 드라마 위주의 포스팅  
혹은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걸

00:09:11.500 --> 00:09:15.212

암묵적으로 알려주는 요소가 되겠죠.

00:09:15.971 --> 00:09:20.775

그리고 위에 보이는 건 말하는  
홍차왕자님이라는 블로그인데요.

00:09:20.875 --> 00:09:25.382

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행,  
사진 그리고 타이포 같은

00:09:25.482 --> 00:09:28.116

디자인에 최적화된 블로그라고  
할 수 있겠습니다.

00:09:28.900 --> 00:09:33.480

타이틀만 봐도 세련된  
디자인으로 해당 블로그에

00:09:33.580 --> 00:09:35.688

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데요.

00:09:36.561 --> 00:09:41.173

기회가 된다면 한번 접속해서  
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

00:09:41.273 --> 00:09:46.391  
이렇게 나만의 블로그 꾸미기를  
위해서 로고, 블로그 이름,

00:09:46.563 --> 00:09:49.984  
대표 사진, 마지막으로  
타이틀까지 알아봤는데요.

00:09:50.084 --> 00:09:53.511  
블로그 타이틀을 제작함에  
있어서 가로, 세로

00:09:53.611 --> 00:09:57.117  
그리고 이미지의 용량까지  
고려해야 하는데요.

00:09:57.217 --> 00:10:00.821  
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 
이어질 실습을 통해서

00:10:00.921 --> 00:10:04.988  
함께 제작해 보면서 하나하나  
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0:05.151 --> 00:10:09.161  
그럼 나만의 블로그 이론 시간은  
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00:10:09.261 --> 00:10:12.158  
이상 블로그 브랜딩  
강사 성창열이었습니다.

00:10:12.258 --> 00:10:13.373  
감사합니다.